

# 민주 “내란특검 수사 범위 협상 가능하지만 시한은 17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국힘안 내놓으면 본회의 일정 조정, 없으면 곧바로 처리 방침 의원단 트럼프 美 대통령 취임식 참석·설 연휴 등 향후 일정 촉박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여당이 자체 내란 특검법을 안고 협상에 나서라”고 압박하면서도,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체 특검법을 공식 발의하면 여야 협상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고, 특검 수사 범위 등을 조정할 여지도 있다면서 여당을 최대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곧 특검법안을 발의할 것이라 들었는데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라면 철저한 수사가 가능한 법안을 내길 바란다”면서 “빨리 양당이 합의하고 처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특검법 내용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여당의 특검법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17일에는 무조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면서 “마지노선”을 그었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자체 안을 내놓지 않으면 곧바로 특검법을 처리하고, 안을 내놓으면 본회의 일정을 조정해 수정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준면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오는 18일 여야 의원단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차 출국하고 내주 설 연휴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아무리 늦어도 17일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쟁점인 수사 범위도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야당의 특검법 수사 범위에서 문제 삼는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 등의 부분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여당과) 협의하겠다는 입장

을 갖는 것은 기존 안을 변화시킬 가능성 열어줬기 때문”이라며 “어느 부분을 양보하고 고수할지는 지도부에 일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는 가급적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낮추고, 조속히 특검을 출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형성됐다.

당내에선 여야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최대한 여당의 입장을 반영한 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방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가능한 한 합의에 여당이 주장하는 위헌 소지를 완전히 없애는 게 훨씬 편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당 일각에선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의결될 수 있고 여당 이탈표가 늘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에선 안 된다”며 “다들의 소지를 적게 해서 통과시켜 특검을 빨리 발족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국힘, 오늘 자체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외환, 내란 선전·선동 혐의 제외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준비한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을 여당 108명 의원 전원이 서명해 당론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기존 수사기관의 공정성을 기대하지 못하거나 수사를 해태할 때만 특

검을 도입하는 게 원칙이며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쟁적으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서 사실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협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한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 한다”며 “최악의 (야당) 법보다는 차악이 낫다는 생각에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서 “상황을 보고 아마 17일께 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계엄특검법은 대통령, 국방부장관 등 행정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등은 제외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 여객기 참사 유족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채택

국토위, 허위사실 유포 등 엄중 조치 요구...국회 특위 활동 시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등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결의안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는 이날 활동을 시작했다.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 여야 간사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김 의원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소위원장을, 이 의원은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장을 맡는다. 특위는 다음 달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재난 현장 취재 언론인 트라우마 예방·치료

### 민형배,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광산) 국회의원은 16일 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언론인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받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현장대응업무인 ‘구조, 복구, 치료 등’에 ‘언론취재’도 포함시켜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최근 항공참사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심리적 외상을 겪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사명감으로 임하는 언론인들이 국가트라

우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또 “현재 지상파 방송 3사 및 일부 언론사는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 연계 등을 통한 트라우마 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 통과 시 재정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언론사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세월호, 이태원참사, 최근 항공참사까지 오랜 시간 이어진 언론인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고흥·보성·장흥·강진 주민 대상 의정보고회

### 문금주, 공약 현황·성과 등



더불어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오는 20일과 21일 양일간 제22대 국회 첫째 의정활동 성과와 주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의정보고회를 연다.

문 의원은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4개군을 일일이 찾아가 주민 대상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역 내 주요 사업성과와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 22대 총선 공약사업 추진현황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농어민 상생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법안 등 주요 입법 성과도 보고할 계획이다.

문 의원은 이 밖에도 지난 10월 실시했던 국정

감사 주요 성과 등도 알릴 예정이다. 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내 최초 벼멸구 피해 재해 인정, 쌀값 폭락에 따른 농업인 민심 대변, 고수온에 따른 양식업 피해 대책 마련 촉구, 불법 수산물 온라인 유통 근절 제도개선 등 농어민 및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이슈를 발굴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문 의원은 이와 같은 활약으로 제22대 국회 초선 국회의원으로 실시한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함께하는 100년 동행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아름다운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 (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